

빈곤과 전인(全人)

자유기고가 최규자

엽색(獵色)을 주목적으로 하는 관광여행을 우리는 일컬어 매춘관광(賣春觀光)이라 하여 배격한다. 예를 들어, 일본인의 동남아시아 관광이 사실은 매춘여행이라는 일본 여성측의 강한 비판이 나와 큰 사회문제가 된 적이 여러번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춘(賣春)은 술자리에서 웃음을 파는 매소(賣笑)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남녀의 연정을 뜻하는 춘(春)을 파는 것이나 웃음(笑)을 파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컬(ironical)하다. 이와 같은 의미로, 여자가 돈을 받고 아무 남자에게나 몸을 파는 행위를 일컬어 매음(賣淫)이라고 하는데, 매색(賣色)이나 매신(賣身)도 같은 의미로 쓰인다.

사회통념상으로, 매춘은 보수를 받을 약속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대와 성교(性交)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상(賣商)한다는 의미에서는 직업을 의미하나, 직업 아닌 단 한번의 상대적 성행위(性行爲)라 할지라도 매춘에 속할 수 있다. 특정한 상대가 아니라 합은 불특정다수(不特定多數)이거나 무선택(無選擇)·무차별(無差別)을 말하는 것으로 소위 단골이라 하더라도 이는 특정의 복수(複數)를 의미하는 만큼 역시 보수(報酬)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어디까지나 매춘이라 아니할 수 없다.

상대를 단 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일정한 생활비(生活費)를 받는 경우에는 첩에 가깝다. 첩(妾)이란 남자가 본처 외에 데리고 사는 여자로 정의되고 있다. 영어에서도 첩을 a kept mistress 또는 kept woman이라 하는데, 이때 kept(p.p. → a.)는 <금전상의 원조를 받고 있는,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의 뜻이다.

보통 매춘행위를 행하는 자를 매춘부·창녀(娼女)·매음부(賣淫婦) 등이라 부르고, 그 외에도 친하게 부르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는 8·15 이후에 외국군인을 상대하는 직업적 여성들을 양부인(洋婦人)·양공주(洋公主) 등이라고 부른다.

매춘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어 예전 고대부터 시작되었다. 그 연혁을 보면, 소위 사원매춘(寺院賣春: temple prostitution)이 그 원명으로서 고대 인도의 무희(舞姬)가 예배자(禮拜者)에게 몸을 맡겼다. 그리고 바빌로니아(Babylonia)나 이집트(Egypt) 등에서도 한 남성에게 평생을 바치기 전에 한번 몸을 신전(神殿)에 맡기는 전통이 있었다.

그리스와 로마시대에 들어와 아테네(Athena)의 매물(賣物)이라는 의미의 프로스타레(prostare)는 오늘날의 매춘, 즉 프로스티튜션(prostitution)을 유래

하게 되었다. 또는 라틴어의 prostituere에서 왔는데 일반대중에게 공개한다는 뜻이다.

당시 귀족들의 노예는 하나의 인육도구로서 사용되어 방탕한 주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켰으며, 그 중에서도 고등계급의 매춘적 노예가 또한 노예를 길러 매춘행위를 시키는 등 이중 삼중의 매춘이 행하여졌다.

그리고 당시에 있어서 공창(公娼)과 사창(私娼) 제도가 설립되어 주로 하층계급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하였으며, 로마에서는 목욕탕이 매춘의 근거지였다. 이와 같은 형태는 파급되어 후에 프랑스나 영국에서도 유행되었다.

중세기에 들어와서는 기독교 사상에서 덕행(德行)과 절제(節制)를 부르짖어 매춘을 극력히 배격하였다. 그러나 봉건제도의 흥망 가운데에서도 전쟁에 종군하는 거대한 매춘부대를 위시하여, 영주나 승려들이 여자의 결혼을 허가를 행할 때에 그 첫날밤의 권리를 자기네가 미리 행사하여 성적 만족을 취하는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영주와 교회에 의하여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의 부녀자·빈민 노동자·결인들은 모두 매춘부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이 많았고, 또한 공공연한 공창제도를 설치하고 보호하여 세금을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16세기 전반이래는 매춘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관과 스파이로 하여금 그들을 색출하여, 처벌할 뿐만 아니라, 추방·강제노동 등의 벌로 가하였다. 그러나 역시 매춘부는 근절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농촌경제의 빈곤·붕괴·도시경제의 모순 등으로 생활의 터전을 잃은 부인들은 도시·군대·승려 등의 옆에서 손쉬운 매춘행위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근대에 들어와서, 근대 자본주의는 일체의 생산물

을 상품으로 취급하게 되자, 정조(貞操)도 일종의 상품화하여, 대량의 매춘부가 나타나게 되었다. 도시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빈민층 부인들은 공장노동에 흡수되었으나, 그 나머지는 대개가 매춘부로 전락하였다.

이리하여 최근 과거한때 경제공황과 전쟁의 황폐로 인하여 그 결과 더욱더 대량의 매춘부를 속출시켰으며, 또한 직업부인으로서도 저임금(低賃金)의 보충으로 매춘행위를 행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전쟁의 공포, 화려한 기계문명에서의 허영심이나 방탕 등으로 인하여 자연히 윤락(淪落)에 빠지는 여성들이 매춘부 증가에 일조(一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풍속과 유형은 이때나 저때나 유사하였던 것 같다. 매춘부의 정경(情景)은 고대에 있어서도, 현재와 비슷하였다 한다. 아테네의 공창의 집은 조그마한 집들로서, 독방에는 명패가 붙어 있었다. 공창의 창녀는 눈에 띄기 쉽도록, 각종 각양의 짙은 화장과 옷차림을 하기도 하였고, 또 손님을 유인하는 소위 유객(誘客)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풍속으로 중세를 거쳐 근대에 들어와서는 강제는 아니나, 매춘부들은 더욱 짙은 화장과 화려한 복장을 하였다. 또한 의복 등에서도 어떤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었다. 매춘부의 정부(情夫)·포주(抱主)·밤거리의 안내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인의(仁義)의 준수(遵守)나 서로의 세력 분포지역안배 등은 어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매춘부는 그 역사로 보아 공창과 사창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등록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들이고 후자는 그렇지 못한 밀매춘부(密賣春婦)를 의미한다. 1970년 중반까지만 해도 홍콩(香港)에는 초대소라는 공창이 존재하고 있었다. 원래 초대소(招待

所)란 초치한 외국의 손님들을 맞아들여 머물러 있게 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19세기말에 와서 영국이 매춘숙(賣春宿)을 금지하게 되자,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공창제도가 폐지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세계 각국에서 이를 완전히 폐지하였기 때문에 공창과 사창의 구별이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하였다. 다만 향락가나 오락가(娛樂街)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의 접객업·가정부·하숙집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매춘 등, 복잡한 양상으로 변질되었다.

엄격한 기독교적 종교계통에서는 고대부터 매춘부는 절대로 천당에 갈 수 없다고 설교하며 통렬히 공박하였다. 또한 중세에는 승원(僧院)에서 폐창(廢娼)수용소를 설치하여, 2회 이상 과실을 일으킨 자는 사형에 처하기까지 하였다.

국가와 자치단체 및 경찰에 의한 방지방법이 로마(Roma)시대부터 시행되었고, 영국에서는 헨리 2세(Henry II)때에 런던 브리지(London Bridge) 부근의 매춘부를 처벌하였고 중세에는 태형(笞刑) 등을 가하는 등 엄히 다스렸다.

18세기경부터는 성병(性病)예방을 위한 검진(檢診)을 행하였는데, 지금은 공창을 폐지하였으나, 경찰의 일제검색(檢索)은 각국에서 행하여져 그 단속 및 성병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성교육의 보급에 따라 활발한 여성운동에 의하여,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을 거쳐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매춘방지를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결국 매춘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빈곤에 기인하는 만큼 그 대책의 궁극적인 방법은 빈곤의 근절로 나아가야만 할 것이다.

요즘은 자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성적 회롱이나 성범죄인데 이것도 매춘을 위요하고 있는 사회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건전한 조기 성교육도 매춘을 방지하는 근본 대책일 수가 있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매춘은 사회정서를 해치고 미풍양속을 파괴하는 불요(不要)한 행위인 바 이 사회에서 결단코 추방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요약해서 3가지로 말할 수 있겠다.

첫째는, 역시 빈곤의 타파다. 어떤이가 <가난은 죄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역시 가난은 최선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생활고에 시달려서 이런 곳에 뛰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먹고살기 위하여 하지 못할 일까지도 하게 된다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있을 정도다. 가난에서 벗어나야 문화수준도 높이고 삶의 질도 풍요롭게 될 수 있다.

둘째는, 윤리의식의 강화(強化)다. 도덕성의 회복과 도덕 재무장이 중요하다고 본다. 물질적인 의식주(衣食住)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측면도 무시 못할 요소라고 분석되고 있다. 역시 기본적인 소양인 교양·양식(良識)과 판별력(判別力)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학교교육도, 지식이나 기술 등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질을 전면적·조화적으로 육성하는 전인교육(全人教育)을 지향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知)·정(情)·의(意)가 모두 갖추어진 원만한 인격자로서 전인(全人)을 지향해야 한다.

셋째는,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힘써야 한다. 이롭고 좋은 정서와 풍속, 곧 미풍양속(美風良俗)을 지키며, 일상생활에서 건전한 미적 정서(情緒)가 황폐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